

산업은행, 미국 아파치 가스정 490개 인수

산업은행이 미국의 석유가스기업인 아파치(Apache)의 가스정 490개를 총 2억달러에 인수했다.

산업은행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 사모펀드(PEF)는 아파치의 텍사스 소재 가스정 490개를 총 2억달러에 인수했다고 12월12일 밝혔다.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 PEF는 산업은행과 SK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가스정 인수 작업에는 미국 가스·유전 개발기업인 파타라(Patara)도 참여했다.

인수자금은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 PEF 투자금인 1억4500만달러에 BNP파리바와 유니온뱅크에서 조달한 인수금융 6500만달러로 마련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PEF 자산인수 방식을 통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1/12/12>